

“이 가격 맞나?”... ‘삼겹살·치킨·떡볶이’ 계속 오른다

외식 물가 1년 새 6.2% ↑ ...13년 만에 최고
치킨·피자·햄버거 등 프랜차이즈 가격 인상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녁이던 집에서 음식 배달 앱으로 메뉴를 고르는 일이 잦아졌다.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몇 년 전에는 이 가격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가격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햄버거, 피자, 커피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식량 위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 물가지수는 107.39(2020년=100)로 전년 대비 6.2% 올랐다. 이는 2008년 12월(6.4%) 이후 1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전체 물가 상승(3.66%)에서 외식 물가의 기여도는 0.78%포인트(p)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외식 물가 상승률은 4.1%까지 치솟았고 이후 12월(4.8%), 2022년 1월(5.5%)까지 쭉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외식 물가가 4%대의 상승 폭을 기록한 것도 2012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격이 점점 비싸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기본 맛만은 아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 치킨 물가지수는 지난해 7.1% 올랐다. 같은 기간 피자와 햄버거도 각각 9.3%, 8.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최근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결정하면서 물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의 외식에 구워 먹는 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지난달 쇠고기(8.2%), 돼지고기(7.5%), 삼겹살(6.5%), 불고기(6.0%) 등의 외식 물가도 모두 급등세를 보였다. 고기를 먹은 이후 후식으로 즐겨 찾는 냉면(7.4%) 역시 가격이 상승했다.

대표적인 배달 음식인 중국집 음식의 경우 자장면(7.8%), 짬뽕(7.6%), 탕수육(5.8%), 볶음밥(7.9%) 등의 가격이 대부분 오름세를 보이는 중이다.

집 근처 분식집에서 한 끼로 먹기 좋은 라면(7.4%)·외식 기준, 김밥(8.2%), 떡볶이(7.3%), 비빔밥(5.8%), 김치찌개백반(5.3%),

된장찌개백반(5.4%) 등의 가격이 꽤 큰 폭으로 뛰었다.

직장인들의 든든한 점심은 책임지는 설렁탕(7.6%), 갈비탕(11.4%), 해장국(6.1%), 쌀국수(4.9%), 칼국수(6.5%) 도시락(6.0%), 구내 식당 식사비(3.6%) 등도 올랐다.

이외에 생선조밥(4.4%), 생선회(9.8%·외식 기준), 돈가스(6.1%), 스테이크(4.9%) 등 우리가 외식 메뉴로 고를 수 있는 대부분의 음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식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은 곡물, 고기 등 원재료가 상승이 꼽힌다.

어윤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국제 곡물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누적에 따른 재료비 인상 등 제조 원가 상승 요인이 더해졌다”고 분석했다.

당분간 이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식량가격지수(FMPI)는 140.7을 기록해 1996년 집계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는 2014~2016년 식량 가격의 평균치를 100으로 가정하고, 현재의 가격 수준을 지수로 표현한 값이다.

특히, 곡물 가격지수가 144.8 전월과 비교



해 3.0% 올랐습니다. 밀과 옥수수의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수가 뛰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소맥(밀)과 옥수수 수출량의 약 30%,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지류와 유제품 지수도 각각 8.5%, 6.4% 상승한 201.7, 141.1로 집계됐다.

FAO는 “팜유는 세계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량 감소 전망으로, 대두유는 남미 지역 생산 저조 전망에 따라 가격이 상

승했다”며 “해바라기씨유는 흑해 지역 수출 저조 우려로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 전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의 경우 가격 결정이 자유화된 시장 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 및 인상 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제네시스 GV60, 무선업데이트로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추가

주차충돌방지보조·주차거리경고·원격스마트주차보조 제공



제네시스의 전용 전기차 GV60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기능을 추가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0월 출시한 GV60의 ADAS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데이트는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I’ 적용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제네시스는 GV60 출시와 함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한해 제공됐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기자 통합 제어 장치 ▲서스펜션 ▲브레이크 ▲스틸러링 휠 ▲에어백 등 주요 전자 제어장치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은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 주차장에서 간편하게

개선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GV60은 이번 업데이트로 ▲전방·측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F/S) ▲측방 주차 거리 경고(PDW-S)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RSPA 2)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주차 충돌방지 보조는 GV60의 아웃사이드 미러에 장착된 광각 카메라와 범퍼에 장착된 측면 초음파센서를 추가로 활용해 충돌 감지 범위를 전방과 측방까지 확장함으로써, 주차 중 차량 모든 방향의 보행자나 물체와의 충돌 위험을 경고하고 제동을 돕는다.

주차 거리 경고 또한 기존 전방·후방의 감지 범위를 측방까지 확대해 전진 또는 후진을 할 때 측면에 위치한 물체까지 경고해준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새롭게 적용된 원격 스마트 주

차 보조 2는 기존 초음파센서 감지 정보에 광각 카메라의 영상 정보까지 추가로 활용해 주차공간 인식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주변에 다른 차량이나 기둥과 같이 기준이 되는 별도의 물체가 있어야 주차 보조 기능 사용이 가능했으나,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 광각 카메라를 통해 주차공간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량 스스로 주차가 가능해진다.

이로써 업데이트 전에는 불가능했던 사선형 주차공간에서도 자율 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키를 사용해 원격 전·후진을 할 때도 주차공간을 인식해 정렬 보조를 수행한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달부터 GV60을 대상으로 순차 배포된다.

차량은 운전자가 주행하는 동안 자동으로 개선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고, 정차 후 전원을 끄면 고객 동의를 거쳐 차량 스스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도 알려준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기능이 강화된 이번 업데이트로 고객의 일상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이 항상 최신으로 유지되는 차량의 기능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스마트폰 소리만으로도 차문을 열 수 있는 ‘디지털 키 2’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조만간 배포할 계획이다.

최이슬기자

함평군, 양파 생산농가 돕기 소비촉진 판매전



함평군이 저장양파 도매가격 하락으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를 위해 양파 소비촉진에 나선다.

함평군은 6일 “함평군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전지몰을 통해 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양파 5kg을 4000~5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구매 희망자가 웹사이트에 함평전지몰을 검색

온라인 쇼핑몰 할인 판매전

색, 쇼핑몰 기획전 배너를 누르면 자동으로 양파 주문 페이지로 연결된다. 1인당 5kg만 한정 구매할 수 있으며, 수량 소진 시 기획전은 조기 종료 될 수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양파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함평전지몰 기획전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동참해주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양파 생산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전지몰은 함평에서 생산한 우수한 농특산물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장터로 함평전지한우, 나비쌀 등 300여 개의 청정 먹거리를 판매 중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광주·전남 수출기업, 무역진흥자금 융자...최대 3억원

해외마케팅·수출용 원자재 구매·긴급 경영안정 용도

한국무역협회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무역진흥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KITA 무역진흥자금 융자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자금은 긴급 경영안정, 바이어 발굴, 특허·규격인증 획득, 해외홍보·시장조사 등을 위한 수출마케팅, 수출용 원자재 구매자금 등

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융자는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연금리는 회원사별 등급에 따라 최저 2.0~2.5%를 적용한다. 상환은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회 분할 조건이다.

대상기업은 지난해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회원사이다.

회비납부 실적 연차별 신청 가능한 최대 융자금액은 ‘10년 이하 2억원’, ‘11~20년 2억 5000만원’, ‘21년 이상은 3억원’이다.

해당 자금은 매년 3~11월 초순에 총 9회

신청을 받는다. 회비 납부 실적 미달로 기회를 놓친 회원사는 익월 신청 시기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은 무역협회 KITA무역진흥자금 누리집(fund.kita.net)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해야 하며, 문의는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062-943-9400)로 하면 된다.

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무역진흥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긴급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석유유통협회 “카드수수료 0.5%p 낮추면 유류비 年2425억 인하여력”

“지나해 주유소 카드수수료 7275억...고유가 시기 수수료율 조정 필요”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민의 경제적 고통과 주유소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유가 인상분만큼 늘어난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유통협회는 7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주유소의 신용카드 결제비율이 95% 수준(2021년 통계)인데, 주유소 카드수수료가 매출액에 대해 1.5% 정률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여서 유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넷(석유공사) 통계에 따르면 휘발유는 지난해 2월 리터당 1463원에서 2월 2월 1740원으로 18.9%(277원), 경유는 같은 기간 리터당 1263원에서 1564원으로 23.8%(301원) 인상됐다. 유가 상승으로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도 20% 가량 증가했다.

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 주유소의 총판매액(휘발유+경유)은 51조4829억원으로, 카드수수료는 7275억원으로 추정된다. 월별통계로는 1월 498억2546만원에서 12월 654억2674만원으로 31.3%(156억 128만 원) 늘었다.

협회는 “현행 1.5%인 수수료율을 1%로 인하하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연간 2425억원(2021년 기준) 낮출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며 “고유가로 소비자와 주유소의 부담은 있는데 카드사는 고수익을 올리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유가 수준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게 최선이지만, 고유가 시기에라도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김정훈 협회장은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은 명목상 1.5%지만 판매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유류세분까지 주유소가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에 달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주유소업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유소 경영에 큰 부담이 되는 카드수수료를 인하여서 주유소도 살고 국민 부담도 낮추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